

사회

'관용' 없는 각박한 사회

고교생 9900원짜리 물건 훔치자 업주 "용서 못해" 112 신고 청소년 절도 전과자 양산 ... 광주경찰 검거 실적경쟁도 한 몫

친구사이인 김모(17·고교 1년)군과 이모(17)양은 최근 광주의 한 편의점에서 9900원 짜리 이어폰 1개를 몰래 훔치다가 편의점 업주(47)에게 붙잡혔다. 김군과 이양은 주인에게 '한 번만 봐달라'고 용서를 구했지만, 평소 자신의 편의점에서 자주 물건을 도난당한 업주는 그냥 넘어가지 않고 112에 신고해 이들을 경찰에 인계했다.

김군과 이양은 지구대를 거쳐 경찰서까지 가게 됐고, '특수절도' 혐의가 적용돼 조사를 받았다. 이들을 조사한 경찰관은 "학생들이 채 1만원도 되지 않는 물건을 훔치다가 특수절도 피의자가 되는 것이 안타깝지만, 피해자가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니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청소년들이 저지른 사소한 절도 사건에 대한 피해자들의 인식도 사회의 흐름과 함께 변하고 있는 것일까. 예전 같으면 부모로부터 변상이나 사과를 받는 수준에서 끝났을만한 사소한 청소년 절도에 대한 피해자들의 '관용'이 사

라지면서 과도한 전과자 양산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같은 현상은 철 없는 시절 청소년들이 저지른 한 순간의 작은 실수로 평생 전과자의 명을 짊어지고 재판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부모는 물론 지켜보는 경찰관까지 안타깝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30일 광주지역 5개 경찰서와 관할 지구대에 따르면 최근 청소년들이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적발됐다는 업주들의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은 청소년들이 훔친 물건의 가격 등 피해 규모에 큰 관계없이 이들을 지구대로 데려간 뒤 '처벌해달라'는 업주의 의사에 따라 경찰서로 인계, 경미한 절도 사건으로 인한 청소년 전과자가 늘어나고 있다.

광주 모 지구대 A경찰관은 "수년전까지만 하더라도 청소년들이 상점 등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현

장에서 들키는 경우 업주가 부모를 불러 훈계하는데 그럴 때가 많았다"면서 "이제는 관용을 베푸는 시민들이 많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더욱이 최근에는 광주지방경찰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절도 검거율을 고러, 관할 경찰서 및 지구대에 검거 실적경쟁을 유도하면서 소액 절도를 저지른 청소년 전과자가 늘고 있다.

비록 청소년 등이 저지른 경미한 절도에 대해서는 실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경찰관들이 상관을 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청소년 소액 절도범에 대해 교육이나 훈방보다는 '입건'으로 기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중학생 아들을 둔 시민 김모(48·광주시 서구 금호동)씨는 "청소년들의 절도가 잘못된 것은 사실이지만, '내 아들과 딸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한번쯤은 너그럽게 용서해주는 미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구제역 방역 비상 최근 경북 안동시의 돼지·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지난달 30일 오후 광주시 북구청 경제정책과 농축산유통팀 직원들이 충효동의 한 축사에서 방역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봇대 광고 부착 방지·새주소 도로명판 사업

공사 알선 10억 챙긴 2명 기소

광주지검 특수부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지난달 30일 광주지역 자치구에서 발주한 새주소 사업 등과 관련, 공사 수주를 도운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추모(59)·윤모(48)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추씨는 지난해부터 광주지역 일선 자치구에서 발주한 22억원 규모의 전봇대 광고물 부착 방

지물 공사와 27억원 규모의 새주소 사업 도로명판 설치 공사의 수주를 돕는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모두 6억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윤씨는 모두 8억7000만원 규모의 광고물 부착 방지물 공사를 맡는 것을 돕고 업체로부터 3억38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추씨와 윤씨는 모 정당 당원 활동을 하면서 단체장 선거를 도왔으며 시·구청 고위 간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사업 수주를 돕고 거액의 알선비를 챙겼다고 검찰은 전했다. 추씨

등은 실제 공사를 하게 될 외지 업체와 본·지사 계약을 맺고 나서 외지 업체를 대신해 관급공사를 따낸 뒤 수수료 받고 남기는 에이전트(대리인) 역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이 전형적인 관급공사 브로커인 것으로 보고 알선비의 일부가 단체장의 정치자금으로 활용됐거나 공무원과 결탁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으나 증거를 찾지 못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교육기관 납품 알선

사이비기자 법정구속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송혜영 판사는 지난달 30일 자신이 출입하는 교육기관 납품계약을 알선하고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광주 모 지역신문 기자 김모(44)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추징금 9200여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말에 광주 한 고등학교에 900만원 상당의 교구를 납품하도록 돕고 200만원을 받는 등 21건의 국·공립 학교와 시 교육청 납품 계약을 돕고, 3개 업체로부터 알선비 명목으로 9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경호기자 choice@

중고차 팔 때 열쇠 숨겼다 되훔쳐

서부경찰 30대 검거

광주서부경찰은 지난달 30일 자신이 판매했던 차량을 다시 훔친 김모(39·경기도 화성시)씨를 절도 혐의로, 주차장을 제공한 김씨의 작은아버지(50)를 장물보관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월 29일 오후 3시에 광주 서구 한 골목길에 주차해 있던 이모(38)씨의 에쿠스 승용차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작은아버지는 훔친 에쿠스 승용차를 보관할 주차장을 빌려준 혐의다. 김씨는 지난 2006년 경기도에서 중

고차 매매상에 약 2300만원을 받고 자신의 에쿠스 차량을 판매한 뒤 최근 다시 매매상을 찾아가 광주에 사는 이씨가 차량을 소유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광주에 내려와 미리 보 관중이던 예비열쇠로 차량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본보 지난달 30일자 6면 '스키장 간 당직의사' 제하 기사 중 전남대 병원 당직의사는 스키장에 간 사실이 없었기에 바로잡습니다. /연습스

나원침 (8184) 김중두



김승환 전북교육감 무혐의

전주지검은 지난달 30일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로 고발된 김승환 전북교육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무혐의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 김철수기자 knews@

배우 출신 이대엽 전 성남시장 양장

오...유명 영화배우 출신인 이대엽(75) 전 경기 성남시장의 측근비리를 수사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달 30일 이 전 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

이 전 시장은 큰 조카 이모(61)씨 부부가 관급공사 수수 대가와 공무원 인사청탁과 관련해 건설업체와 공무원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에 연루돼 수억원의 뇌물을 받았으며, 또 지난달 2일 그의 분당 아파트에서 검찰이 압수한 1000만원이 넘는 위스키 '로열샬루트 50년산'을 뇌물로 받은 혐의가 인정.

이 전 시장은 "이 전 시장이 뇌물수수 등 4가지 혐의가 있으나 구체적인 범죄사실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이 전 시장은 지난 29일 검찰에 소환돼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향했으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 /연습스

전남대 총학생회장 선거 '진통'

대리투표·허위 학력 기재·허위사실 유포 잠음

예비당선자 공고 ... 전학대회서 최종 결정기로

투표 종료 후 6일 만에 실시된 개표에서 대리투표로 추정되는 무더기 집단서명이 발견되는 등 전남대 총학생회장 선거가 거듭 물의를 빚고 있다.

이와 함께 개표 후 예비당선자로 공고된 비운동권 후보팀 '전설 총학생회'(박은철 산업자원공학과·송은광 경영학부 4년)도 2일 열릴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결과에 따라 최종 당락이 결정될 예정이어서 선거가 난항을 겪고 있다.

전남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30일 비운동

권인 '전설 총학생회' 후보가 총 투표자 8703명 중 5249표(59.93%)를 획득, 2373(27.1%)표를 얻은 운동권 후보팀 '우리 총학생회'(윤주상 경영학과·노승아 신문방송학과 4년)를 누르고 예비당선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표 후 중앙선관위의 선거원 명부 확인 과정에서 공과대학 제4투표소의 선거원 명부에 투표자 서명 대신 '동그라미'로만 표시된 집단서명이 발견돼 이 투표소의 519표가 모두 무효 처리됐다. 이에 앞서 선거 과정에서 '전설'은

허위사실 유포와 허위학력 기재 등으로 경고 1차례, 주의 2차례 등을 받았으며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 부의장이 사퇴하는 등 선거를 둘러싸고 잡음이 계속됐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오는 2일 단과대학 학생회장과 학년 대의원 등 350여명이 참석하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의결에 따라 당선자의 당락을 결정할 계획이다.

'전설'의 당선이 확정되면 2004년 이후 7년 만에 비운동권 후보가 총학생회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하지만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당선 무효를 의결하면 최악의 경우 예비당선자명이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예상된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ShinYang Park Hotel
Dinner Show **해바라기**

2010. 12. 16(목) 19:00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 볼룸

₩150,000원 (VAT포함) ※ 15세 미만은 입장이 불가능 합니다.

|주최및주관 (주)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예약및문의 T. (062) 228-4711~2

christmas family buffet

▲ 12월 24일 | 18:00~21:00

▲ 12월 25일 | 12:00~15:00

대인 | 30000 (VAT포함)

소인 | 20000

www.hanbitgosi.co.kr

최다수강생

최다합격률

최고의시설

최강교수진

7·9급 행정직/세무직/법원직/검찰직
교행직/농업직/기술직/소방직/교정직

호남최대 7·9급 공무원시험전문학원 — 개강 12월 1일 주·야, 종합/단과

한빛고시학원

전남대 북구청 앞 (062) 252-0252 직영학원 김영편입학원 227-8088

12월 1일

주·야, 종합/단과